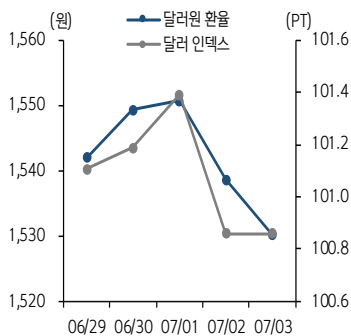


#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까?

FX Talk & Insight : 금주 1,520~1,550원 전망

시발 투자 과열 우려 대두된 반면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 등으로 최근 주가와 원화 가치가 급등락 반복. 외인들의 한국 증시 매도세가 원화 가치에 지속적 부담을 안기고 있지만, 시장 기대 하회한 미국 6월 고용으로 달러 강세도 숨을 고르는 국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 일부 회복되고 유가도 의미있게 하락하면서 미국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압박은 다소 경감. 서울 외환시장이 24시간 체제로 전환되면서 제도적 변화 시작되지만 환율에 새로운 방향성 부여할 변수는 아닐 듯

## 외환시장



지난 6월 18일 매파적 FOMC를 기점으로 한 단계 높아진 외환시장의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달러 인덱스(DXY)가 101p대에 진입하자 달러-원 환율도 1,560원 전고점을 위협하기도 했다. 미국 고용 안도감과 정부의 환율 안정 의지로 달러 인덱스가 다소간 밀리고 원화 환율도 1,520원대로 급락했지만, 최근 원화 환율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는 없다. 원화의 상대적 절하는 국내 증시 과열 논란과 맞물려 외국인의 투자자금 이탈도 중심에 있겠지만, 특히 162엔을 넘어선 가파른 달러-엔 환율의 상승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승계하면서 엔화 약세에 비교적 관대한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최근 일본 외환당국이 환율 상승에 경고를 계속하고 있고, BOJ 역시 추가 금리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나에노믹스가 엔화 가치의 절하를 유발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 같다. 일본의 성장 견인력이 떨어지며 글로벌 위상이 저하되자 안전자산의 위치에서 내려온 가운데, 정부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재정 상태가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다는 딜레마가 외환시장에도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결국 기술혁신의 시대에 성장에 대한 시장 확신이 부족해 보인다.

전망치	금주 예상 레인지	
	저점	고점
달러원	1520	1550
달러엔	160.5	162.5
유로달러	1.136	1.151

실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강국이었던 일본은 1990년대를 지나며 장기 저성장의 후유증과 중국 급성장으로 수출 시장에서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 지난 1990년대 전세계 수출 시장에서 메이드 인 재팬이 10%를 넘나들었지만 최근에는 3%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물론 생산 다변화와 글로벌 현지화로 인해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추락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출 시장이 좁아질수록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통화가치 절하 압력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더구나 성장이 정체되다 보니 일본내 투자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기업은 국내로 고정투자를 확대하지 못하자 현금만 쌓이는 양상이 되고 있다. 수출로 달러를 벌어도 엔화로 환전할 유인이 떨어진 셈이다.

중국이 가파르게 추격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인 수출 경쟁국이고 일본의 엔화 약세는 원화 약세를 유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하지만 이러한 관습적인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 보면, 혹시 외환시장은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미래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고령화와 설비투자 저하로 인해 잠재 성장 저하가 걱정되고 있고, 한국의 기업 역시 현금 보유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물론 반도체 강국 이미지와 AI 지원 정책 등으로 일본과의 차별화 요인도 존재하더라도, 글로벌 금융 시장이 이를 확인하려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결국 반도체를 필두로 한 한국 수출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엔화에 연동하는 원화 환율 움직임이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당국의 개입 수위 뿐만 아니라 미달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연준을 주시할 수 밖에 없다. 기대치 하회에도 위축과 거리 있는 고용지표와 여전히 높은 물가수준의 조합이라면 위시 홀로 매파적으로 변하고 있는 FOMC를 막아내기에는 한동안 힘에 부칠 수도 있겠다. 따라서 이번주에는 서비스·제조업 ISM 지불가격 등 물가 관련 지표와 함께 기자회견으로는 부족했던 연준의 분위기를 FOMC 의사록을 통해 가늠해야 할 것 같다.

Economist 소재용  
jyso@shinhan.com  
02-2151-2638

Economist 백석현  
seokhyun100@shinhan.com  
02-2151-2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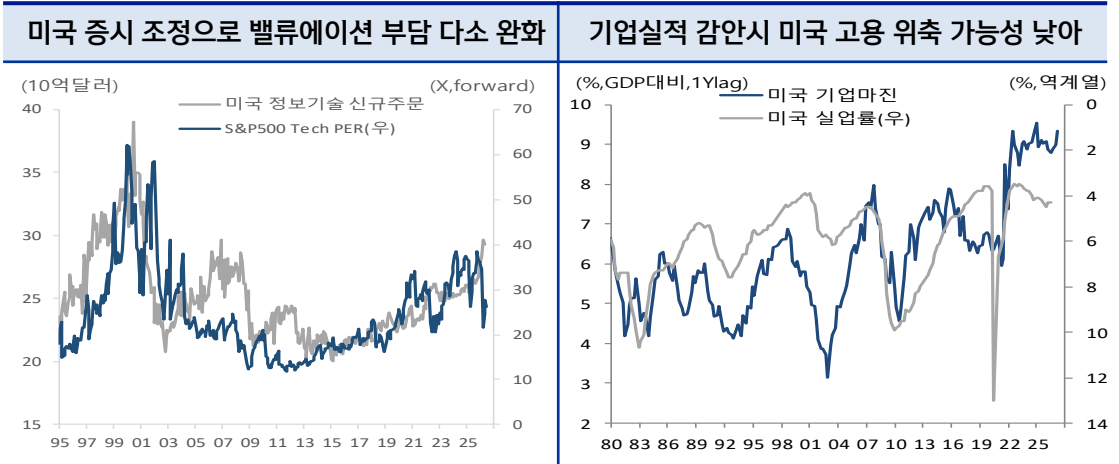
# Weekly FX Economist View

##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까?

### 그림으로 해석하는 매크로 관전 포인트

AI 과열 우려와 실적 기대감 공존하며 미국 증시 등락 반복하는 양상. 외환시장도 연동해 변동성 노출되나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은 일부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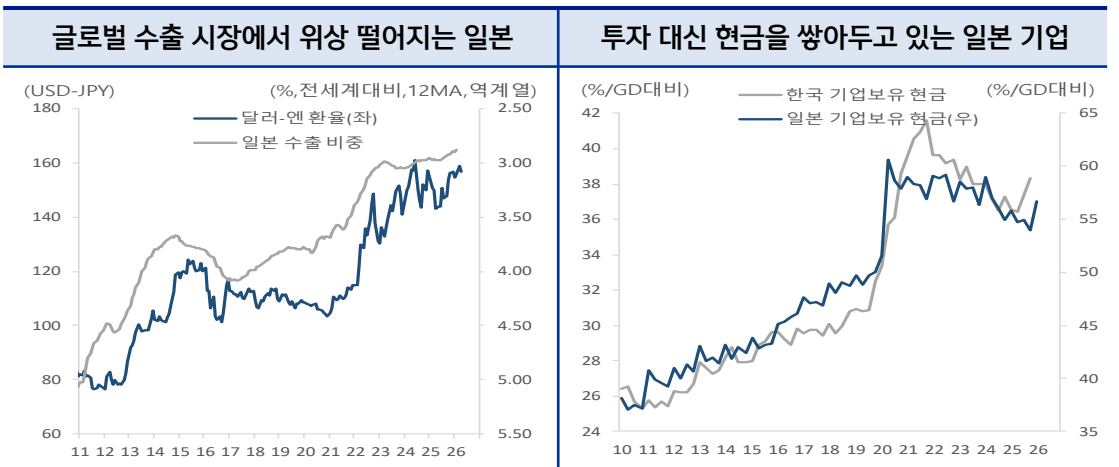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AI 혁명으로 미국 경제 여건은 견조. 기업 실적 양호하고 고용과의 시차 발생 감안할 경우 물가와 더불어 통화긴축 자극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미달러 인덱스 소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 두드러지며 원화 환율 상승 야기. 일본의 수출 경쟁력 및 지배력 저하로 인해 엔화 약세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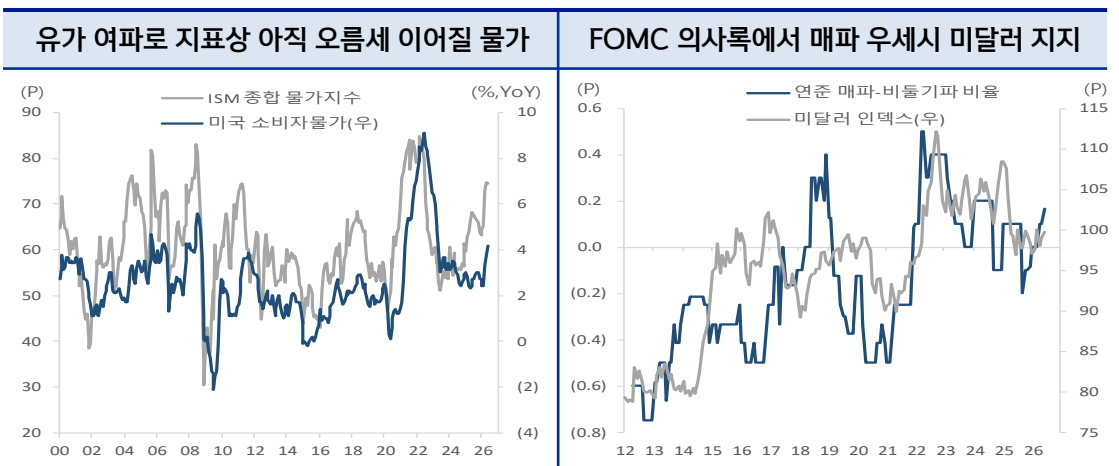
일본은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인 저하 등으로 기업이 현금 보유하며 엔화 강세 유인 저하. 한국 역시 유사한 모습 전개되는 점은 부담 요인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중동 전쟁 소강 국면 접어들며 유가의 물가 견인력 점차 둔화 소지. 그러나 수요 측면 물가 상승 압력 및 IT 가격 인상 등으로 안심하지 못해

미국 물가 및 고용은 금리인상으로 통화정책 변경 자극하며 달러를 지지. 다만 유가발 일시적 요인 희석되는 시점까지는 인내심 드러낼 듯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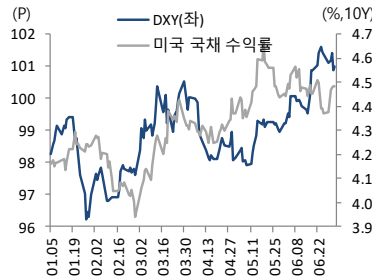
Weekly  
FX Economist View

#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가?

## FX Navig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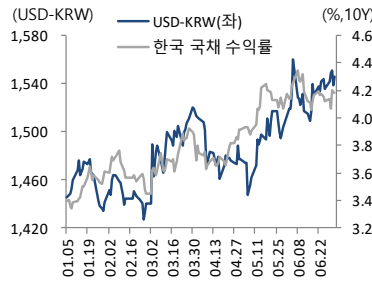
DXY(미달러 인덱스)



리뷰	시 과잉투자 우려감 높아지며 글로벌 외환시장 변동성 커지자 달러에 대한 선호도 상승. 시장 기대치 하회한 6월 미국 신규 고용과 즉각적인 금리인상과 거리를 두고 있는 워시 의장을 발언으로 DXY 다소간의 하락 있었지만 낙폭은 제한적
프리뷰	미국 기술산업의 실적 결과 주시하는 가운데 FOMC 의사록을 통해 연준의 분위기 해석할 가능성. 연준이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 이나 미국 경제 및 기술 산업에 위협 역시 제한적이라는 인식 나타날 경우 통화긴축 전환에 타당성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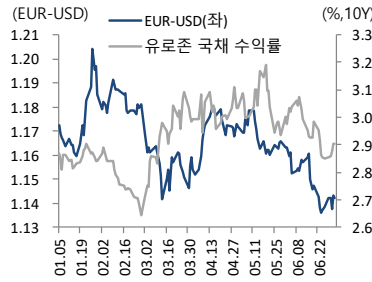
USD-KRW(한국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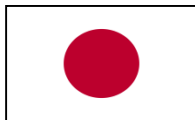
리뷰	지난 주말 물리적으로 공격을 주고 받은 미국과 이란이 주초 개장 전 공격 중단 합의하면서 시장 반응 미미했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6월 하순부터 대규모 순매도하면서 6월 말부터 1,550원 상회. 미국 6월 고용 부진에 1,540원 일시 하회한 뒤 반등
프리뷰	7월 6일 서울 외환시장이 24시간 체제로 전환되는 것 자체가 환율에 방향성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현재 시장 관성은 환율 상승 방향. 무역수지로 창출되는 달러 유입을 능가하는 자본 유출 탓. 다만, 쉬어가는 국면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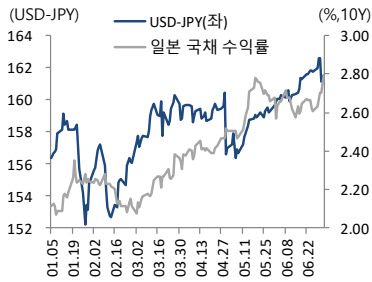
EUR-USD(유로화)



리뷰	6월 24일 1.13 초반 대에서 하락을 멈춘 유로화가 이후에는 반등했지만 강한 모멘텀은 없어서 1.14를 회복한 수준.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과 함께 유가가 하락하면서 유로화도 서서히 반등. 7/2에는 미국 6월 고용이 예상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1.147까지 상승
프리뷰	통화정책 측면에서 美 금리 인상 재개 기대 커진 반면, ECB 추가 긴축 기대 약화되며 유로화가 하락했지만 유로화 하락 압력은 상당폭 완화. 호르무즈 통행량 일부 회복되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연준 향한 매파적 기대도 일부 조정. 다만, 유로화 반등 완만할 듯



USD-JPY(일본 엔)



리뷰	환율이 6월 말/7월 초 163엔에 육박하면서 일본 당국의 개입 경계감도 함께 상승. 엔화 약세에 베타한 투기적 포지션도 역대급이었던 2024년 여름 수준에 가깝게 확대. 다만, 2일 미국 6월 고용 보고서 부진에 환율 반락하며 주 후반 161엔 수준에서 등락
프리뷰	엔화 약세의 정치적 비용이 커졌고 현재 엔화 수준도 40년 만의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일본 당국이 추가적으로 개입할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 4월 말부터 대규모 개입 없었다면 현재 167엔이 적정 수준이라는 판단. 엔화 약세 압력 자체는 지속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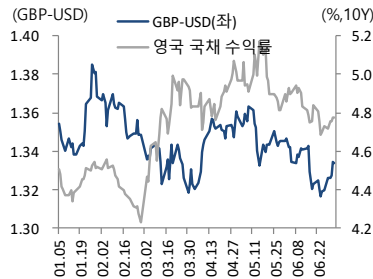
Weekly  
FX Economist View

#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가?

## FX Navig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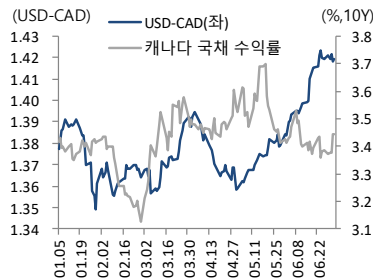
GBP-USD(영국 파운드)



리뷰	6월 24일 1.314에서 하락을 멈춘 GBP가 이후 반등하여 주 후반에는 1.33을 훌쩍 상회.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과 함께 유가가 하락하면서 GBP도 서서히 반등. 7/2에는 미국 6월 고용이 예상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1.34에 육박
프리뷰	앤디 버넘(Andy Burnham)이 영국 차기 총리로 부상하는 가운데, 아직 미정인 재무장관의 성향에 따라 파운드화 방향 달라질 것이기에 향후 재무장관 임명 소식에 반응할 것. 재정건전성 중시하는 인물 일 경우 GBP에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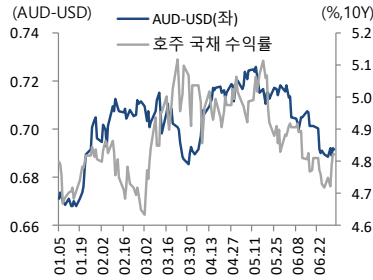
USD-CAD(캐나다 달러)



리뷰	일방적으로 상승하던 환율이 6월 24일 1.425 앞에서 멈춘 뒤 반락했지만 1.42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과 함께 유가가 하락하면서 CAD도 소폭 반등. 7/2에는 미국 6월 고용이 예상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1.415까지 하락
프리뷰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의 무역협정 USMCA 갱신을 거부하고 사실상 매년 협상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 CAD에 하락 압력 가해질 것. 최근 CAD 약세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며 환율 상승 압력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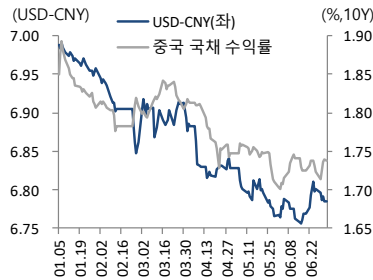
AUD-USD(호주 달러)



리뷰	위험자산 약세 뚜렷했던 6월 23일 크게 하락해 0.69 하회하기 시작한 AUD가 6월 말에 저점 기록한 뒤 소폭 반등해 주 후반 0.69 회복. 7월 2일 발표된 미국 6월 고용 부진이 AUD 반등에 기여했지만 반등에 힘이 실리지는 못했음
프리뷰	호주의 주택시장 부진이 최근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던 호주 중앙은행(RBA)을 돌려세울 수 있다는 평가. RBA의 완화적 정책 기대가 AUD의 힘을 빼는 가운데, 최근 5월 이후의 원자재 가격 부진도 당분간 AUD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듯



USD-CNY(중국 위안)



리뷰	글로벌 달러 강세에 6월 24일 한때 6.82에 육박했던 역의 환율(USD/CNH)이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여 주 후반에는 6.78 향해 접근. 중국 6월 제조업 PMI(민간 집계)는 소폭 둔화된 반면, 서비스업 PMI는 예상을 크게 상회
프리뷰	역외 위안화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등 위안화 국제화가 가속 기대를 뒷받침하는 가운데, 위안화 강세 기대감 유효. 중국의 AI 및 기술주 과열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위안화에 부정적 영향 미칠 단계는 아닌 듯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까?

## 금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이벤트	기간	예상치	이전치	중요도
7-06-2026 10:00	AU	멜버른 연구소 인플레이션 전월비	Jun	--	-0.30%	81
7-06-2026 23:00	US	ISM 서비스 지수	Jun	54.2	54.5	83
7-07-2026 8:30	JN	노동자 현금수입 (전년대비)	May	--	3.50%	67
7-07-2026 21:30	US	무역수지	May	-\$78.8b	-\$55.9b	85
7/07/2026	CH	외환보유액	Jun	--	\$3442.24b	69
7-08-2026 8:00	SK	BoP 경상수지	May	--	\$28292.3m	74
7-08-2026 8:50	JN	BoP 경상수지	May	--	¥3907.8b	90
7-09-2026 3:00	US	FOMC 회의록	17-Jun	--	--	60
7-09-2026 10:30	CH	PPI 전년비	Jun	--	3.90%	90
7-09-2026 10:30	CH	CPI (전년대비)	Jun	--	1.20%	98
7-09-2026 23:00	US	기존주택매매	Jun	4.24m	4.17m	87
7/09-7/15/2026	CH	통화공급 M2 전년비	Jun	--	8.60%	83
7-10-2026 21:30	CA	실업률	Jun	6.80%	6.60%	92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주 : 날짜 및 시간은 한국 기준/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중요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중요한 지표로 평가  
US(미국), EC(유로존), UK(영국), GE(독일), JN(일본), CH(중국), CA(캐나다), AU(호주), SK(대한민국)

### 서울 외환시장

(단위 : 원)

구분	달러/원	위안/원
시가	1,544.5	227.8
고가	1,548.9	228.1
저가	1,525.1	225.2
종가 <sup>1)</sup>	1,525.6	225.2
전일비	-30.2	-4.0
평균환율	1,539.7	227.4
NDF(1M)	1,526.7	
거래량	339(억불)	418(억위안)

1) 서울외환시장 3시 30분 종가

### 주요 통화 환율

통화	환율	전일비
USD/KRW	1,530.10	-8.45
JPY/KRW	948.34	-6.16
EUR/KRW	1,749.52	-9.13
GBP/KRW	2,042.11	-9.93
AUD/KRW	1,061.40	-2.82
CAD/KRW	1,077.29	-6.94
USD/JPY	161.34	0.23
EUR/USD	1.1437	0.0005

### 금리 장외파생상품 (원화)

(단위 : %)

만기	IRS	전일비	CRS <sup>2)</sup>	전일비
1Y	3.505	0.003	3.040	0.00
2Y	3.780	-0.004	3.245	-0.02
3Y	3.868	-0.007	3.335	0.00
4Y	3.922	0.000	3.415	0.00
5Y	3.951	0.000	3.475	0.00
7Y	3.987	0.002	3.565	0.00
10Y	4.022	0.005	3.465	-0.01

2) 3개월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3개월물과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

### 기준 금리 및 채권금리 (원화)

구분	종가	전일비
CD 91일물	2.92	0.00
통안 1년	2.18	-0.00
통안 2년	3.73	-0.00
국고채 3년	3.75	0.00
국고채 5년	3.97	-0.01
국고채 10년	4.20	+0.01
국고채선물(3년)	103.07	+0.01

### 단기 FX Swap Point (원화)

(단위 : 전)

만기	SWAP Point	전일비	Implied CRS
1M	-105	-20.00	2.91%
3M	-320	-10.00	2.91%
6M	-740	0.00	2.90%
1Y	-1,460	50.00	3.05%

### 금리 장외파생상품 (미국)

(단위 : %)

만기	국채	전일비	IRS <sup>3)</sup>	전일비
1Y	3.92	-0.049	3.98	-0.057
2Y	4.14	-0.037	3.98	-0.054
3Y	4.16	-0.023	3.95	-0.015
5Y	4.23	-0.007	3.94	-0.010
10Y	4.48	0.004	4.06	0.003

3) 1년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1년물과 교환되는 달러 고정금리

### 주요 증시

증시	종가	전일비	
KOSPI	8,088.34	+440.25	+5.76%
미국 DOW	52,900.07	+594.83	+1.14%
중국 상해종합	4,043.64	+14.74	+0.37%
일본 NIKKEI 225	69,744.07	+1,010.92	+1.47%
영국 FTSE 100	10,679.03	+26.16	+0.25%

### 기타

종목	종가	전일비
WTI (선물)	68.69	+0.11
금 (선물)	4,125.70	+43.30
3M TERM SOFR	3.75	+0.00
3M EURIBOR	2.32	-0.01
KOR 5Y CDS	22.50	+0.10

· 본 자료는 자료 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매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행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